5가지 핵심으로 보는 로잔운동

1. 로잔운동의 사명과 비전

로잔운동은 세계 선교를 가속화하기 위해 존재한다. 이를 위해 우리는 지역, 선교적 이슈, 세대 전반에 걸쳐 인플루언서와 아이디어를 연결한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4중 비전 즉, 1) 모든 사람을 위한 복음, 2) 모든 사람과 장소를 위해 제자 삼는 교회, 3) 모든 교회와 부문을 위한 그리스도를 닮은 지도자, 4) 사회의 모든 영역에 미치는 하나님 나라의 영향력을 목표로 한다.

2. 로잔운동의 핵심적인 믿음

우리는 세상의 창조주이시며 주되신 영원한 한 분 하나님, 곧 성부, 성자, 성령에 대한 우리의 신앙을 확신한다. 하나님은 그의 뜻과 목적에 따라 만물을 통치하신다. 그는 자기를 위해 세상으로부터 한 백성을 불러내시고 다시 그들을 세상으로 내보내시어 그의 나라를 확장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 그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 그의 부름받은 백성을 그의 종과 증인이 되게 하신다.

우리는 신구약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유일하게 기록된 말씀으로서 신성한 영감, 진실성, 권위를 확증한다.

우리는 신구약 성경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되었음을 믿으며, 그 진실성과 권위를 믿는다. 성경 전체는 기록된, 하나님의 유일한 말씀임을 믿는다.

우리는, 전도의 방법은 다양하지만 구세주는 오직 한 분이요 복음도 오직 하나임을 확신한다.

(로잔언약에서 발췌*)*

3. 로잔운동의 역사와 영향

로잔운동은 1974년 빌리 그래함(Billy Graham)목사가 스위스 로잔에서 제1차 세계복음화 국제대회를 소집하면서 시작됐다. 이 대회는 150개국에서 2,400명이

넘는 참가자가 참석했다. 존 스토트(John Stott)는 이 모임을 통해 나온 로잔언약*(The Lausanne Covenant)*의 수석 설계자였으며 선교에 대한 글로벌 신앙 선언문을 명시했다.

2010년 남아프리카 케이프타운에서 개최된 로잔의 세 번째 세계대회에는 198개국에서 4,000명의 지도자들이 모였으며 '그 어느 때보다 가장 광범위하고 인종적으로 다양한 복음주의 기독교 지도자들의 모임'으로 불려왔다(크리스채너티 투데이).

로잔운동은 '미전도 종족 집단,' '10/40 창,' 총체적 선교와 같은 선교적 아이디어와 전략을 도입하고 촉진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오늘날 로잔 이슈 네트워크는 디아스포라, 이슬람, 교회 개척, 위험에 처한 어린이 등과 같은 세계 선교의 중요한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4. 2024 서울 로잔대회**(The Seoul 2024 Congress)**

2024 서울 로잔대회로도 알려진 제4차 세계복음화 로잔대회가 2024년 9월 22일부터 28일까지 대한민국 서울에서 개최된다. 이 글로벌 행사에서 목표하는 바는 모든 나라와 영향권에서 참가자들을 모아 통찰력으르 나누고, 대위임령(마태복음 28:19-20)의 현황에서 비롯된 이슈들에 대해 토론하는 것이다.

이 중요한 모임의 전후로 지속되는 다년간의 다면적인 로잔 4(Lausanne 4, L4)의 여정과 제4차 로잔대회의 목적은 예수님의 대위임령을 성취하기 위한 협력적 실천을 활발하게 일으키는 것이다.

5. 글로벌 선교의 미래

거의 50년 동안 지속된 로잔운동은 세계 선교를 가속화해 왔다. 우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예수님의 위임령을 성취하는 데 있어 남은 격차를 줄이기 위해 협력적 행동이 지속적으로 가속화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우리는 2050년을 염두에 두고 세상과 소통하는 법을 배우고 다음 세대의 지도자를 준비하면서, 지구상 모든 나라의 신자들을 '교회여, 함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나타내자'는 말과 함께 세상 가운데 보내고자 한다.